

“2m34 은빛 도약”...우상혁, 세계선수권 2개 메달 ‘새 역사’

종아리 부상에도 커와 명승부 끝 2위...2022년 이어 두 번째 은메달

최선을 다했고, 명승부도 펼쳤지만 아쉬움은 남았다.

우상혁(29·용인시정)은 16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넘어 2m36의 해미시 커(뉴질랜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도쿄 국립경기장을 뜨겁게 달군 명승부였다.

13명이 출전한 결선에서 우상혁은 2m20과 2m24를 1차 시기에 넘었고, 2m28과 2m31은 2차 시기에 성공했다.

2m34를 1, 2차 시기에서 실패한 뒤 우상혁은 “할 수 있다. 상혁야”라고 읊조리며 3차 시기를 시작해 바를 넘었다.

커도 3차 시기에서 2m34를 통과해 우상혁과 커의 2파전이 시작됐다.

우상혁은 2m36을 1차 시기에서 실패했고, 커는 1차 시기에서 바를 넘었다.

우상혁은 바를 2m38로 올려 승부수를 던졌지만, 2차와 3차 시기에서 바를 건드리며 2위로 경기를 마쳤다.

2022년 미국 유진 대회에서 2m35를 넘고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낸 우상혁은 도쿄 대회에서 은빛 메달을 추가했다.

이날까지 한국이 세계육상선수권에서 따낸 메달

은 총 3개(은 2개, 동 1개)다.

2011년 대구 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김현섭은 당시에는 6위를 했지만, 앞선 기록 선수 3명의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밝혀져 2019년 8월 ‘대구 세계선수권 3위’로 공인받았다.

우상혁은 한국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따낸 선수로 기록됐다.

놀라운 성과지만, 한국 육상 첫 실의 세계선수권 우승을 놓친 건 아쉽다.

우상혁은 경기 뒤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금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다”며 “대한육상연맹 육현표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은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성과는 오늘까지만 만족하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우상혁은 도쿄 세계선수권에 앞서서 출전한 7개의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실내 시즌 3개 대회(2월 9일 체코 실내대회 2m31, 2월 19일 슬로바키아 실내대회 2m28, 3월 21일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2m31)에서 정상에 오르더니, 실외 시즌에서도 5개 대회(5월 10일 왓 그래비티 챌린지 2m29, 5월 29일 구미 아시아선수권 2m29, 6월 7일 로마 다이아몬드리그 2m32, 7월

12일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2m34)에서 1위를 차지했다.

커와의 맞대결에서도 4전 전승을 거뒀다.

하지만, 8월에는 종아리 부상 탓에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우상혁은 8월 10일 독일 하일브른 국제 높이뛰기 대회 출전을 앞두고 종아리에 불편함을 느꼈다.

결국 우상혁은 출전 자격을 갖춘 세계육상연맹 주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도 불참했다.

예정보다 빨리 귀국한 우상혁은 병원 검진에서 종아리 근막 손상 진단을 받았다.

우상혁은 “2주 동안 치료에 전념했고, 8월 말부터 정상 범위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훈련 강도를 높였다”며 “부상당하지 않았더라 더 좋았겠지만, 종아리 통증이 도쿄 세계선수권에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 더 세심하게 몸을 살피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훈련을 멈췄던 2주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올해 출전한 마지막 국제대회인 도쿄 세계선수권에서 우상혁은 2cm 차로 커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연승 행진을 멈췄다.

대신 우상혁은 ‘사류’를 얻었다.

우상혁은 “부상을 당해보니, 내가 많은 응원을 받는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됐다”며 “김도균 감독님은 물론이고, 용인시정, 대한육상연맹, 팬 분들까지 많이 걱정하시고 응원해주셨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연합뉴스



우상혁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위에 오른 뒤, 태극기를 들고 세리머니하고 있다. /연합뉴스



11년 만에 2025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출전한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18일 핀란드와 대회 C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국민의례 하는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FIVB 홈페이지 캡처>

‘16강행 좌절’ 한국 남자배구, 핀란드와 최종전

오늘 세계선수권 마지막 승 도전

11년 만에 출전한 2025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이सान에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은 18일 오전 11시 30분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북유럽의 ‘북방’ 핀란드와 대회 C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지난 2014년 이후 무려 11년 만에 세계선수권 무대에 복귀한 우리나라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다.

우리나라는 1차전에서 세계 4위 프랑스에 0-3으로 패한 데 이어 세계 9위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서 한 세트를 따냈지만 1-3으로 지면서 2연패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대회에선 32개 팀이 네 팀씩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여 각 조 1, 2위가 16강에 오른다.

2연승을 달린 아르헨티나(승점 5)가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 중인 프랑스(승점 4)와 핀란드(승점 3)가 2, 3위에 랭크돼 있다.

우리나라는 승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최하위로 밀렸다.

세계 26위인 우리나라로선 나머지 3개국 중 세계랭킹이 가장 낮은 핀란드(18위)를 상대로 승리 또는 승점 사냥에 나선다.

이번 대회에선 한국 V리그와 마찬가지로 3-0 또는 3-1 승리 시 승점 3, 3-2 승리 시 승점 2, 2-3 패배 시 승점 1을 부여한다.

3차전에서 맞붙는 핀란드는 이번 대회에서 만만찮은 실력을 과시했다.

아르헨티나와 개막전에서 폴셋트 점전 끝에 2-3으로 져 승점 1을 얻었고, 2차전에서 작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프랑스를 3-2로 제압하는 ‘코트 반란’을 일으켰다.

우리나라는 핀란드와 역대 상대 전적에서 4승 9패로 열세다.

김호철 현 IBK기업은행 감독이 대표팀을 지휘했던 2017년 6월 4일 FIVB 월드컵 서울 대회 때 3-2로 꺾었지만, 이전에는 높이와 파워에서 앞선 핀란드에 고전했다.

우리 대표팀은 좌우 쌍포인 허수봉(현대캐피탈)과 임동혁(국군체육부대)이 공격을 이끈다.

아웃사이드 히터 허수봉은 아르헨티나전에서 17점, 아포짓 스파이커 임동혁은 같은 경기에서 15점을 각각 사냥하며 둘이 32점을 합작했다.

같은 경기에 출전한 정한용(대한항공)과 나경복(KB손해보험)도 6득점과 2득점을 기록했다. 대표팀 주장인 세터 황택의(KB손해보험)도 경기를 조율하면서 재치 있는 공격으로 2점을 뽑았다.

세계선수권 마지막 경기인 핀란드전에서 태극전사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된다./연합뉴스

PGA 텃친 가뭄...27년 만 개막전 코스 변경

내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막전 더 센트리의 개최 코스가 27년 만에 바뀐다.

PGA 투어는 더 센트리가 내년에는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의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파73)에서 열리지 못한다고 17일(한국시간) 밝혔다.

해마다 새해 첫째 주에 열리는 더 센트리는 내년에는 1월 9일 개막할 예정이다.

카팔루아 리조트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6년 동안 더 센트리를 개최했다.

내년에 카팔루아 리조트에서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이유는 마우이섬이 겪는 극심한 가뭄에 있다.

지난 2023년부터 강우량이 크게 적어진 마우이섬은 지난 9월부터 ‘물 부족 상태 2단계’에 들어가

제한 급수를 시작했다.

골프장에도 물이 떨어 수가 없어서 이미 플랜테이션 코스는 두 달째 문을 닫았고 페어웨이 잔디는 갈색으로 변했다.

PGA 투어는 “가뭄이 계속되고 잔디 관리가 어려워 도저히 대회를 이곳에서 치르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PGA 투어는 다른 개최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1953년에 시작된 더 센트리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 등에서 열리다가 1999년부터는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줄곧 열렸다.

지난해 더 센트리에서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우승했다.

/연합뉴스

KLPGA 하나금융 챔피언십 승부 열쇠는 ‘긴 클럽’

비에 젖은 코스에 비거리 줄어

“아무래도 긴 클럽을 자주 잡아야 할 것 같다.”

18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시 베이즈베스트 청라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주요 선수들은 비에 젖은 긴 코스에서 긴 클럽을 써야 할 상황을 승부의 열쇠로 꼽았다.

베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은 파72에 6781야드의 긴 코스다. 3, 4라운드 땀 6813야드로 더 늘어난다.

KLPGA 투어 대회가 열리는 코스 가운데 아주 긴 편이다. 더구나 대회 개막 하루 전 17일엔 많은 비가 내렸다.

공이 구르는 거리가 확 줄어들어서 선수들이 체감하는 길이는 더 길어진다.

17일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세계랭킹 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긴 클럽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자 이민지도 “비가 와서 코스가 길어졌다. 페어웨이가 젖어있어서 볼에 진흙도 묻을 것 같다”면

서 “모든 선수한테 어려운 코스고 페어웨이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작년 이 대회에서 최종합계 19언더파로 우승했던 마다숨은 “비가 와서 공이 떠서 날아가는 거리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짧은 거리에서야 핀을 노리겠지만 아무래도 중장거리 버디 퍼트를 자주 쳐야 하는데 그게 승부의 열쇠가 될 듯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현경 역시 “비가 와서 공이 구르지 않아 긴 클럽으로 그린을 공략해야 할 텐데 핀 위치에 따라 현명한 그린 공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비거리가 짧은 KLPGA 투어 상금랭킹 1위 노승희는 “비가 안 와도 나한테는 긴 코스”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낸 뒤 “두 번째 샷 거리를 잘 맞추는 데 집중하고 짧은 홀에서 버디 노리겠다”고 전략을 소개했다.

리디아 고는 “어릴 때 한국에 오면 부담스러웠다. 잘 치고 싶었고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욕심도 냈다”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편하게 내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 전에는 한국 와서 안 풀리면 속상했는데 지금은 행복하게 경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천영록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천영록 개인전

일시 : 2025-09-19(금) ~ 2025-10-26(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9회 정기연주회 'Fall in love with Opera'

일시 : 2025-10-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